

의 관념으로부터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도 우리는 공동주의로부터의 전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북미의 개인주의와 차이가 많이 난다. 단지 젊은 세대의 경우 사회적 결연이나 선택 및 자기 표현에 있어서는 점점 더 북미의 개인주의를 닮아 간다고 하겠다. "소비주의"는 개인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북미나 우리나라 큰 차이가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물론 아직도 경제 관념, 경제 질서, 자본주의적 특징 등 거시적 차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말이다.)

"국가주의"는 원래부터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강하다. 한국의 국가주의가 그렇게 발전한 것은 적어도 세 가지 요인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우리는 미국에 비해 단일 민족 (완전한 의미에서는 아니지만)을 견지하고 있다. 둘째, 우리는 북한과 이데올로기상 대치하고 있다. (또 주변에 중국과 일본이 위치하고 있다.) 셋째, 한국의 국가주의는 미국과 달리 기독교와의 관련성이 거의 없다.

"도덕적 상대주의"는 한국 사회에 전보다 훨씬 더 유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성 윤리의 영역에서 그렇다.) 그러나 도덕적 상대주의 [저자들이 지적한 바] 철학적 근거에 입각한 입장은 거의 기술을 부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과학적 자연주의"는 일부 지식층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점점 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뉴에이지"는 서양식 개인주의를 제외하면 한국 사회에도 크게 편만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우주적 차원의 "새 시대"는 별 사상적 공감이나 문화적 표현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단지 개인들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혼합주의적이고 동양 종교적인 행동과 시도가 인기를 끌고 있다. 무속주의와 뉴에이지는 사회적 친화력을 가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까지는 실제적 접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포스트모던 부국주의"는 미국 특유의 현상이므로 아직까지 한국 사회와 문화에서 유사성을 찾아 볼 수 없다.

"종교가 된 심리 치료" 역시 한국 풍토에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다. 물론 앞으로 심리 치료나 상담 등이 한국 사회에서 크게 번성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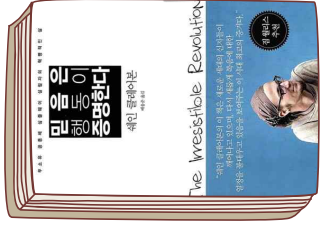
둘째, 현재 한국의 실정에서는 어떤 항목들이 "은밀한 세계관"을 구성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현재 한국의 사회와 문화 속에 편만해 있을 뿐 아니라 교회에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는 세계관들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것 또한 시급하고 중요하다. 여차하면 그 누군가 어떤 식의 책을 써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번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한국 내에 풍미하는 "은밀한 세계관"으로 제시해 본다.

- 기독교의 — 자이주의
- 학벌주의 — 경제주의
- 쾌락주의 — 성공주의
- 외모주의 — 미국주의

"은밀한 세계관"은 북미의 문화를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분석하고 치방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공헌을 했다. 또 번역 또한 수준급으로 되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에 관심을 가진 이들의 일독을 강력히 추천한다.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가 한 시 빨리 한국의 실정에 맞는 "은밀한 세계관"의 저자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송인연 서울동신대학교 조식신학 교수이며, 새시대교회에서 장교로 있다. MF 간사와 총무를 역임한 바 있으며, 총신대학교와 미국의 칼빈 신학교에서 신학, 사범부스 대학에서 철학(M.A, D) 공부하였다. 저서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새 머리 여우 길들이기', '에베방 중의 기독교를 탐미하라', '다윗이 사는 삶을 위하여', '복음과 지성', '그림된 성', '잃어버린 자이를 찾아서' (이상 MF), '이른 만민 우리는 예배(홍성사)' 등이 있다.



웨이 클레이본 저 | 배은주 역
아버서원

민음은 사랑이 증명한다 웨이 클레이본의 민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한정호

사랑에 대해 다시 질문하기

크리스천의 사랑은 무엇일까? 웨이 클레이본은 책의 서두에서 이와같이 질문하면서 시작한다. 사랑에 대한 물음과 답은 이 책의 전체를 감싸는 주제이다. 『민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는 책의 제목처럼, 저자는 오직 '사랑'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살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독자의 심정은 경이롭거나 불편할 뿐이다.

저자의 삶이 감동적이면서도 불편한 것은 그의 '급진적인 삶' 때문일 것이다. 대개 '급진적'(radical)이라는 단어의 뜻은 '진보적'(progressive)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기가 쉽다. 하지만 저자는 앞에 수식어를 붙여 자신을 '평범한' 급진주의자로 소개한다. 그는 '급진적'이라는 단어의 뜻을 뿌리(root)로 받아들이고서, 자신이 기독교의 뿌리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고 소개한다. 이런 의미에서 저자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삶의 방식 그대로 살아내려는 한 사람의 '평범한' 급진주의자로 이해될 수 있다. 말씀 그대로 온전히 살아내려는 그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감동을 안겨준다. 반면 그가 추구한 '삶의 방식', 곧 '심플웨이' 공동체의 시도는 보는 이에게 불편함을 준다. 심플웨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

하고, 예수님을 따르다는 세 가지 비전에 따라 부유한 도시 속 '빈민가'로 들어갔다. '항상 복음을 전하라. 필요한 때만 말하라'라는 슬로건은 낮은 자리에 있는 유혹 및 불복종의 노숙자들과 인도의 환우들, 이라크 공습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향해 철저히 지켜졌다. 개인의 회심과 변화가 우리와 세상에게로 확장된다는 것을 몸소 드러낸 것이다.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조직신학을 통한 것보다도 노숙하는 임마들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배웠다'는 그의 고백처럼, 저자는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

이 책은 세상에 '사랑', '정체성', '삶의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답하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책을 읽어야만 하는 이유 역시 위의 세 가지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크리스천의 사랑은 전통적인 교리를 믿는 것으로 충분할까? 믿음과 행동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제자로서의 삶은 어떠한 삶이며, 어디에까지 확장되어야 하는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이상의 세 가지 물음에 대한 저자의 답변을 차례대로 정리한 후 결론적으로 함축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명, 개인으로부터 세상으로

첫 번째 질문은 '사명에 관한 것이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크리스천의 사명이 내세를 향한 희망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문을 제기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 예수님의 설교를 실천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설교에 감재를 보내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지 않은 채 예수님의 십자가만 숭배하는 사람들"이 과연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저자는 케이트케고르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의 영악한 모습을 고발한다.

"문제는 지극히 단순하다. 성경은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교활한 험잡꾼 배거리리이다.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갖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척한다."

저자에게 사명이란, 말씀에 대한 정직한 반응이자 온전한 헌신이다. 그렇게 구현된 사명은 개인의 영혼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고통으로 신음하는 세상이 그들의 나라를 통해 회복되는 것을 보길 원한다. 이러한 저자의 교회론은 '외서 교회를 찾았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향해 '세상으로 들어가고 선언한다. 구원론, 교회론과 밀접하게 연결된 저자의 사명은 오롯이 행동을 통해서만 입증된다.

진짜 무신론자는 '가난한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저자의 고백 속에서, 영혼의 변화가 세상을 향한 애도함과 공화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된다. 리처드 마우스의 영혼 구원과 사회 구원이 균형의 문제가 아닌 순서의 문제임을 지적했다. 그는 '칭의와 '행벌' 속죄가 하나님 나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그리스도께서 죄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우리 개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행벌 속

죄가 구원의 필수 기초라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저자에게 사명이란 말씀에 대한 정직한 반응이 영혼의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보여준다.

정체성, 보수의외, 진보주의가 아닌 사랑으로

두 번째 질문은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앞에서 저자가 소개한 평범한 금진주의자는 정확히 어떤 존재를 말하는가? 그는 보수와 진보로 양극화된 사회처럼 교회 역시 그렇다고 하면서, 서로를 적으로 규정한 채 반대하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거듭남은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우리'와 '그들'을 최대한 분리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우리'가 되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저자가 정의한 '평범한 금진주의자'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뿌리에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삶의 근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증명된다.

"교회에 '진짜'가 넘쳐나듯이 사회정의의 운동권에도 '운동가'가 흔하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 (중략)... 우리에게는 단순히 거리 운동가들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군대가 필요하다. 하나님과 고통받는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이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꺼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평범한 금진주의자의 정체성은, 곧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 있는 행위보다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를 기대하신다. 교회가 언제나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 있을 원하신다. 저자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만이 모든 행동의 동기와 목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삶의 방식,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식으로 복음에 응답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고통받는 이웃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소명을 찾아야 한다. 삭개오와 마태는 세상의 패권과 맞지 않는 '급진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실천하기 위해 도시 민민가에서 노숙인들과 함께 지냈고, 이라크 평화팀과 함께 비그라드로 떠나기도 했다. 또한 윌스트리트에서 희년행사를 거행하며 제국의 맘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공동체와 소박한 삶의 중요성을 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저자의 삶의 면면에서 드러나는 존재 방식은 두려움과 불안의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다.

저자는 안전함과 안락함이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그의 삶은 불안과 약함을 드러내면서도 거침없이 사랑을 향해 집중한다. "크리스천은 문제를 만드는 사람, 불확실성을 창조하는 사람, 사회와 공존할 수 없는 차원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던 자크 엘룰처럼, 그의 삶은 위험과 불안 속에서도 불평등의 익숙한 및 피조물의 탄식을 그치는 일에 치열하게 달려간다. 단지 그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는지 질문했고, 그 질문에 충실하게 답하며 살았을 뿐이었다.

사랑으로 맘몬을 굶겨 죽여라

저자의 책을 읽으면서 가장 깊은 울림을 준 문장을 꼽으라면, 나는 '사랑으로 맘몬을 굶겨 죽여라'를 꼽을 것이다. 초대교회의 본질을 함축한 이 문장은, 회심한 저자의 삶을 사로잡은 핵심 가치가 되었다. 그의 사랑은 사랑하는 것이었다. 그의 사랑도, 정체성도, 삶의 방식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랑의 삶'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랑으로 행한 일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이들에게 '감동적인 이야기' 혹은 '불편한 이야기'가 된 것이다. 저자의 삶을 신화적으로 재단하기 어려운 것은, 그의 삶이 말씀에 대한 정직한 반응과 사랑의 행함으로 맺은 열매임을 공감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반에 임묵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저자의 삶의 방식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음을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저자가 말하는 거듭남을 통한 소유의 재분배가 과연 우리 현실에 필요한 기독교적 삶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소박한 삶을 살면서도 사랑이 없으면 맘몬의 노예가 될 수도 있다는 저자의 지적은 어떤 면에서 자신에게 화살을 당기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가 말한 것처럼 우선 순위와 중심은 '사랑'이다. 기쁨이 결핍된 세상을 회복시키는 힘은 사랑에서 나온다. 믿음은 사랑이 증명하는 것이다.



황정호 '일주일에 책 한 권'을 통해 일체 모임을 만들고, 책 읽기를 통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는 중이다. 홍익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M.Ed)을 졸업하고 은평구 강현동에 소재한 세광교회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있다.